

미국 원조동향¹⁾

I. 미국 개발원조의 전략적 기초와 새로운 방향

1. 미국 개발협력의 기초

1) 개발원조 체계

- 미국 개발원조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가 아닌 분권화된(decentralised) 형태로 운영됨.
 - 국무부의 외교정책 지침(foreign policy guidance)이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유관 부처들 간의 상호연계가 대단히 약하며 상호공조 체제도 느슨함.
 - 그 이유로는 미국 외교정책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고, 동원되는 재원의 규모가 크며, 권한이 과도하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통, 그리고 대외원조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USAID가 양자원조의 중추기관이며 그 외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보건부, 평화봉사단 등 50여개 정부부처가 대외원조에 관여하고 있음.
- NGO, 민간재단, 싱크탱크, 의회 등도 대외원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전략적 지향방향

- 미국은 개발원조에 있어서 하나의 단일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부재한 대신, 보다 실용적인(pragmatic)인 방식을 활용하는 바, 이는 다음 두 단계로 이루어짐.
 - 우선, 개발원조 전략 관련, 개발원조는 미 외교

1) 본 내용은 DAC의 Peer Review(2002)를 요약 정리한 것임.

정책의 불가분의 일부(integral part)임.

- 국무부가 발표하는 미국 국제관계 전략계획(United States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Affairs)은 미국 국가이익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문건인 바, 그 1999년판에서는 개발원조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자주 언급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경제개발, 법제계적 경제성장과 안정, 민주주의와 인권, 인도적 원조, 세계환경, 인구 및 보건 등

-상기 전략적 틀 아래에서 국무부와 USAID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함. USAID는 동 전략계획에서 세계-지역-국가별 구체적인 원조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단, 미국 원조전략에서는 빈곤감소를 원조제공의 논리로써 명시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음.

□ 9.11 테러사건 이후 USAID는 원조전략을 수정하여 ①경제성장, 농업 및 무역 ②세계보건 ③민주주의 분쟁, 인도적 지원 등 3대 기둥('pillars'), 그리고 ④Global Development Alliance(GDA) 등 4개 이슈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

-앞의 세 가지는 기술적 전략목표이며 ④는 사업 추진방식과 관련됨.

-GDA는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과제들이 복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정부부처, NGO,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미국 내 원조관련 행위주체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발원

조 관련 상호공조 및 재원조달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개발자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함을 목표로 함.

2. 1998년 이후 정책 및 조직 개혁

1) 개발원조정책의 변화

□ 부시 대통령은 2002년 New Compact for Development를 발표하여 빈곤퇴치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포함됨을 천명함.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은 ODA 규모를 50억 달러 증가시킨 바 이 추가재원은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²⁾에 제공됨.

-아울러 동 이니셔티브는 미국 정부부처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미국은 2002년 10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도 개발과 관련한 이슈를 반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MCA를 통한 미국의 핵심 개발원조의 50% 증가, 원조효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측정가능한 결과(measurable results) 고수, 세계은행 등의 개혁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효과성 제고 등이 있음.

□ 개발정책에 있어서 단기(short-term)적 국가이익과 장기(long-term)적 개발관련 고려사항 간에는

2) <참고자료 1> 참조

긴장관계가 있는 바, 공여국이 원조제공시 국가이익을 우선할 경우 수원국의 개발 필요와 일치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DAC는 이러한 양자간 긴장관계를 인식한 바, 개별국가의 이해가 반영되는 정도를 낮추고자 ('lower the flag')하는 개발정책 마련으로 이어짐.

□ 미국은 개발관련 국제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 UNFPA(UN인구활동기금)에서 탈퇴하는 등 개발원조 부문에서의 일부 정책은 논란의 소지를 남김.

2) 조직 및 운영체제 개편

□ 미 의회는 USAID를 비롯한 원조관련 기관이 개발 프로그램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 온 바, USAID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직체제 등을 개편하여 왔음.

□ 미 행정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성과개선 추세에 맞추어 USAID도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책 및 예산부문 강화, 3대 기둥 각각을 담당하는 부서(bureau) 신설, 지역담당부서의 역할 명료화, GDA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reorganisation)을 단행함.

3. 개발원조에 대한 정치적 감독 및 대중의 개발원조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이슈

1) 법적 정당성의 확보

□ 미국 입법부는 3권분립체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

외원조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침.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의회는 행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의회의 견해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회의 지침은 원조프로그램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기도 하며, 이 지침은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음.

-입법부의 지침이 대외원조에서 종종 활용됨.

□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 현재 미국의 유일한 대외원조 관련 법률임.

-1961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의회에서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얻지는 못함.

-그 결과, 예산배정 및 지침 수립 시, 그 유형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 원조효과성이 저해됨은 물론, 현장 사무소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 및 입법에 있어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미국 개발원조의 방향에서는 이 국가이익 개념을 함께 반영하는 한편, 원조공동체가 원조효과성 향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개발협력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낮은 이해

□ 미국 국민들은 개발원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후생(unsustainable welfare)'이라는 인식이 강함.

-1995년 메릴랜드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개발원조에 할애하고 있으며 그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여론이 개발원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원조 기관과 일반 대중간 의사소통이 긴요함.

- 의회는 USAID가 기관의 사업현황과 성과 등 활동상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원조 유관기관 및 NGO,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연대를 통해 개발원조 교육 및 주요 이슈의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할 것으로 보임.

II. 미국 원조내역

1. 최근 미국 ODA 지원 현황

□ 2003년도 ODA 규모: US\$ 16,254백만(ODA/GNI 비율: 0.15%)

- ODA 총액 기준으로 DAC 22개 회원국 중 1위이나, ODA/GNI 비율 기준으로는 최하위임.

- 총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

- 미 행정부는 2004년 초 1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를 설치함

〈미국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US\$ 백만)

1992-93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10,916 0.17%	9,955 0.10%	11,429 0.11%	13,290 0.13%	16,254 0.15%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14

2. 2003년 미국 ODA 세부내역

1) ODA 규모: US\$ 16,042백만(2003년)

- 양자간 ODA 규모: US\$ 14,594백만(90%)

- 다자간 ODA 규모: US\$ 1,661만(10%)

〈상위 10대 수원국〉

(단위: US\$ 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2003 평균)	총 ODA 대비점유율 (2002~2003 평균) ³⁾
1	이집트	831	5.1
2	러시아(OA)	808	-
3	이라크	775	4.8
4	콩고민주공화국	749	4.6
5	이스라엘(OA)	666	-
6	파키스탄	656	4.1
7	요르단	622	3.8
8	콜롬비아	513	3.2
9	아프가니스탄	427	2.6
10	이디오피아	374	2.3
합계		6,421	34.1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p.104

2) 유상/무상원조 규모

- 무상원조(grants and grant-like contribution): US\$ 16,294백만

- 유상원조(Development lending and capital): US\$ -1,709백만(차관회수)

3)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공적원조(OA) 대상국에 해당하므로 제외함.

〈상위 10대 수원국 변동추이〉

(단위: %)

순위	국명 (1992~93)	%	국명 (1997~98)	%	국명 (2002~03)	%
1	이스라엘	12.2	이스라엘	12.7	이집트	5.1
2	이집트	11.3	이집트	10.3	이라크	4.8
3	터키	3.6	엘 살바도르	4.2	콩고민주공화국	4.6
4	엘 살바도르	2.3	소말리아	3.1	파키스탄	4.1
5	방글라데시	2.3	필리핀	2.1	요르단	3.8
6	인도	1.7	콜롬비아	1.5	콜롬비아	3.2
7	수단	1.7	인도	1.1	아프가니스탄	2.6
8	북 마리아나	1.7	자메이카	1.1	이디오피아	2.3
9	파키스탄	1.5	파키스탄	1.1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2.2
10	코스타 리카	1.4	파나마	1.0	인도네시아	1.4
합계		39.7	38.2		34.1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3)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지원의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15% 이상의 지원이 유지되고 있음.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유럽	6.6	2.0	7.5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20.7	18.1	7.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4.1	18.1	31.2
북중미	14.1	16.1	5.5
남미	2.9	7.5	9.4
중동	22.7	22.7	14.4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10.9	8.9	17.5
극동아시아	5.0	5.2	5.3
오세아니아	2.9	1.3	1.5
합 계	100	100	100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 2000년대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및 서남아/중앙아시아 지역 지원비중이 크게 증가함. 반면, 기존 중점지원대상 지역이던 중동,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지역 지원규모는 대폭 감소함.

4)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기준)

- 중저소득국에 46.9%, 최빈개도국에 30.6%를 지원하고 있음.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LDCs)	17.0	18.1	30.6
기타저소득국(Other LICs)	10.4	10.4	20.0
중저소득국(LMICs)	44.4	44.8	46.9
고중소득국(UMICs)	4.4	4.6	2.5
고소득국(HICs)	-	-	0.0
MADCT ¹⁾	23.8	22.1	0.0
합계	100	100	100

1) MADCT: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5) 2003년도 미국 분야별 지원실적

- 사회 및 행정인프라 34.0%, 다부문 14.8%, 프로그램 원조 13.8%, 긴급구호 13.2% 등의 순.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

분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34.0(3.2)
교육(기초교육)	1.3(1.1)
보건(기초보건)	3.3(3.2)
인구	7.1
식수 및 위생	0.5
정부 및 시민사회	13.9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7.9
소 계	34.0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0.2
교통 및 통신	0.6
에너지	1.3
기타	1.3
소 계	2.2
생산 (Production)	1.0
농업	4.1
제조업, 광업 및 건축	0.6
무역 및 관광	0.6
소 계	5.6
다부문(Multisector)	14.8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13.8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 ³⁾	12.3
긴급원조(Emergency aid)	13.2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4.0
기타(Unspecified)	-
합 계	100

※ 자료: OECD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19

Ⅲ. 주요 지원섹터 및 교차사안

1. 빈곤감소, 그리고 다양한 토대를 기초로 한 지속가능 경제성장

- 미국의 핵심적인 개발원조활동 목표는 다양한 토대를 기초로 한(broad-based) 경제성장임.
- USAID의 목표 및 전략은 명시적으로 빈곤감소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빈곤감소가 핵심 추진목표임. USAID는 다양한 토대를 기초로 한 경제성장 전략이 빈곤감소전략을 의미한다는 입장임.
- 미국은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USAID 내에 경제성장, 농업, 통상담당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을 신설함
 - 2004년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를 설치하여 빈곤감소를 명시적인 목표로 함.
- 그러나 미국은 ODA 목표를 빈곤국에 맞추고 있지 않으며, MDGs 달성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는 바, 이것이 USAID가 타 원조기관과의 공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다양한 토대를 기초로 한 지속가능 경제성장의 장려

- 2001 회계연도에 USAID는 23억 달러를 경제성장 지원에 지출함(USAID 전체사업비의 약 1/3).
 - 구체적인 지원분야로는 민간부문 개발, 통상개발, 공기업 민영화, 재정 및 금융분야 개혁, 농업

개발, 소규모기업 경영 등이 있음.

- 인프라 개발 분야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바, 수원국이 인프라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프라 지원은 국제개발은행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입장에 기인함.
- 그러나 최근 신설된 MCA 수혜국들의 경우 대단히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미국이 인프라 구축에 동 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이 경우, 인프라 건설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수원국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1) 통상역량 배양

- 미국은 개도국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접근(access)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무역은 소득창출과 아울러 아이디어와 혁신을 불러와 국내산업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입장임.
- 통상역량 배양사업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USAID 및 기타 유관 정부부처가 100여개 개도국에서 통상역량 배양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99~2001 회계연도간 통상역량배양 사업부문에 13억달러가 지출되었으며 그 중 70%가 개도국에 지원됨.
 - 주요 지원분야는 인적자원 역량 배양(2억5600만 달러), 무역 원활화(2억4500만 달러), 금융부문개발(2억3400만 달러) 등임.
 - USAID는 전체 사업비의 1%를 동 부문에 지출

(2001 회계연도 8600만 달러)

□ 미국은 통상역량 배양의 우선순위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처간 공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최근 USTR은 무역역량 강화 및 부처간 공조가 임무 중 하나로 되어있는 부무역대표를 임명한 바 있음.

2) 농업부문 개발

□ 미국은 농업부문 개발과 관련, ①생산증대 ②시장 효율성 향상 ③시장 접근성 개선 ④무역 및 투자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원조사업을 추진해 옴. 아울러 미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식량지원 국가임.

□ 농업부문 개발 담당 주요기관은 농무부 소속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와 USAID임.

- 농업부문 관련 USAID의 예산규모는 계속 줄어들어 왔으나, 현 Natsios 청장 취임 이후 다시 동 부문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1년 회계연도 USAID의 농업부문 지원규모는 2억 1백만 달러임(총 사업예산의 4%).

3. 사회 서비스

1) 보건

□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은 건강한 노동력과 아동들의 교육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시각에서 인명구조, 인구증가를 안정화, 보건상태 개선 등에 많은 지원을 제공함.

- 미국은 특히 재생보건분야가 개발의제에서 중

요한 위치를 가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부문에 있어서 세계 최대규모의 지원국가임.

□ 미국은 보건 부문 개발원조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음.

- AIDS 퇴치 세계기금 등 국제 보건 이니셔티브에 재원을 제공하고, AIDS 모자간전염 예방을 위한 5억 달러의 예산제공 등 양자간 개발원조 노력도 배가하고 있음.

□ 2001년 회계연도에 USAID는 14억 달러(사업예산의 19%)를 보건부문에 지출함.

- 주요 목표는 ①의도치 않은 임신율 감소 ②영아 및 아동사망률 감소 및 건강/영양상태 개선 ③임신/출산에 따르는 건강 위험 감소 ④AIDS 전염 및 사회적 영향 감소 ⑤전염병의 위험 감소 등임.

□ 보건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USAID는 동 분야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개발청 내 관련 전문가들을 세계보건국(Global Health Bureau)에 한데 모아 각종 기술지원 및 자문을 제공함.

□ USAID 외에 보건부도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 등을 통해 유관 지원을 제공(CDC의 경우 질병조사 및 연구역량 지원). USAID는 기타 유관 정부부처들과 공조하여 보건 관련 지원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 NGO도 미 정부의 보건사업 예산을 통해 개도국 내에 기초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

2) 교육

□ 미국은 교육이 건전한 경제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의 성장 등 개발의 기초로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USAID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교육 관련 개발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음.

□ 교육 섹터 관련 주요 행위자는 국무부와 USAID임.

□ 2001년 회계연도 USAID의 교육섹터 지원규모는 2억 8300만 달러(총 사업예산 대비 4%)로서, 25개 국가에서 사업 추진

- 주요 사업목표는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강화로서 특히,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교육의 질 및 공평성 개선을 강조함.

- 또한 NGO 단체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이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미국은 민주주의와 good governance가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입장임.

□ 동 부문 지원에는 USAID 외에도 국무부, 국방부, 공화·민주 양당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 2001년 회계연도 기준 USAID의 동 부문 지원규모는 9억 5600만 달러(총 사업비 대비 13%)임.

- USAID 현장사무소의 80%가 민주주의 및 good governance를 전략목표로 설정.

- 주요 지원분야: ① 법률 및 법률체제 정비 ② 정치 과정의 강화 및 공정선거 수행 ③ 시민사회 개발 ④ 정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역량 강화 등

- 미 의회가 2000년 반부패와 Good Governance 법을 통과시킨 후 USAID는 부패척결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임.

□ OECD/DAC의 '폭력적 분쟁예방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안보체제 개혁은 governance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그러나 USAID는 군사, 치안 관련 개발분야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는 바, 이는 governance 관련 분야에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만들어 원조의 효과성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음.

5. 분쟁예방

□ USAID는 1994년부터 전후복구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분쟁관련 지원이 모든 개발 이슈와 관련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기존 분쟁예방에 대한 관여를 더욱 넓혀가고 있음.

- 현재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분쟁분석(conflict analysis),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등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방식임.

□ USAID가 마련한 분쟁예방 관련 전략은 개발원조가 분쟁의 역학(dynamics)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코자 함.

- 이러한 분쟁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정부부처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함.
- 예컨대, 과거 많은 전쟁들이 경화기(small arms)에 의해 수행되어진 바, 경화기 담당부처(내무부 또는 법무부)와 국내-지역-국제적 차원에서 상호공조함으로써 경화기 불법거래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USAID는 현지사무소에서 국별전략을 마련 시 분쟁취약성 평가(Conflict Vulnerability Assessment)를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있음.

6. 비상사태 및 재난구호

- 미국은 세계 최대의 비상사태 및 재난구호 제공국가로서 최근까지 연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 옴.
- USAID 외에 국무부, 농무부, 국방부 등이 재난구호에 참여하고 있음.
- 국무부는 각종 국제구호기구에 재원을 제공하며 농무부는 USAID와 함께 식량지원을 제공함.
- 국방부는 군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난구호에 참여하나, 그 중 ODA로 계상되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
- USAID는 해외재난지원실(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을 통해 미국 각 정부부처의 재난구호 활동을 조율하는 한편, 비식량 지원을 NGO 및 UN 기구를 통해 제공함.
- 2001년 회계연도에 USAID는 13억 달러를 재난구호 부문에 지출(USAID 예산의 18%)

7. 교차사안

1) 여성문제

- USAID는 여성문제를 개발분야 내에 주류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여성개발담당실(Office of Women in Development)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함. 2002년 회계연도 예산은 1천만 달러임.
- USAID의 모든 실행전략계획 마련시에 고려되는 기술적인 이슈에 있어서, 양성평등 관련 분석(gender analysis)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성과관리 체계 및 사업평가시에도 여성문제에 민감한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음.
- 여성개발담당실은 아울러 NGO 단체 등 USAID의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공조하여 여성문제를 다루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2) 환경

- USAID는 환경보존과 지속가능개발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삼림 및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에너지 효율개선 등 다양한 환경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함.
- 2001년 회계연도 기준 동 부문 USAID 예산은 5억 9천만 달러임(총 사업비의 8%).
- USAID는 환경문제담당실(Office of Environment)이 환경문제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으나 타 지역국 및 현지사무소도 여러 환경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함.
- USAID의 환경문제 대한 접근방식은 해당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USAID는 기술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NGO, 타 공여국, 국제기구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과 파트너십(‘Water for Poor Initiative’, ‘Clean Energy Initiative’, ‘Congo Basin Forest Partnership’ 등)을 통해 환경개발문제를 다루고 있음.

IV. 정책일관성

□ OECD/DAC의 빈곤감소 가이드라인은 주요 개발 주제로서 다음 6가지를 제시:국제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국제금융, 식량 및 농업, 천연자원 및 환경지속성, 사회적 이슈, 정부 및 분쟁

-여기서는 국제무역, 농업, 구축성 원조의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일관성 현황을 검토

1. 국제무역

□ 미국은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며 개도국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을 장려함.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는 무역과 개발의 상호연계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2002년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장려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한 이후, 행정부는 농업부문 통상 개혁안을 마련

-동 개혁안은 향후 5년간 수출보조금 철폐, 광범위한 관세 및 무역왜곡 국내조치의 감소 등이 주요 골자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수입관세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일부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관세를 부과

-섬유, 의복, 신발, 가공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미국 전체 수입물량의 6.7%에 지나지 않으나 관세 수입은 USD 8.7 billion으로서 미국 전체 관세 수입(USD 18.6 billion)의 46.8%에 달함.

-대 개도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7.3%로서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 1.6%에 비해 높음.

□ 미국은 개도국의 미국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일반특혜관세(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카리브해 분지 이니셔티브, (Caribbean Basin Initiative, 이후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로 대체됨), AGOA(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등의 조치를 추진

□ 미국의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정책은 재량적인 부분이 많아 자유무역체제 구축에 효과적이라고 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음.

-미국은 개도국에 부여하는 특혜조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그로 인하여 정책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동 조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게 됨.

-미국 원조담당 부처간 대 개도국 평가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예컨대, 무역대표부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개도국이 다른 원조프로그램에서는 원조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음.

□ 미국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수출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원산지규정, 위생검역규정 등을 개도국이 충족하기 어려움.

-이 점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는 검역 기타 통관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USAID도 최근 Trade for African Development and Enterprise Initiative를 추진하여 개도국에 무역역량배양 기술지원을 제공

- 미국의 반덤핑법(anti-dumping law)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때 개도국들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

2. 농업정책

- 다수 선진국들은 자국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 결과 국내생산 증가와 국제농산물 가격 하락을 가져와 결국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기회가 제한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개도국 농산물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더욱이 이들이 찾을 수 있는 대안적 소득원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 빈곤상태의 심화로 이어지게 됨.
 - 미국의 경우 막대한 시장의 규모로 인해 보조금 지급의 영향이 대단히 큼.
- 미국정부는 연방농업개선개혁법안(FAIR, 1996년) 및 농촌보호및투자법안(‘Farm Bill’, 2002년)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에 소득 및 가격보조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음.
 - FAIR는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직접적인 소득보조로 전환하고, Farm Bill은 지원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들 법안은 모두 미국 내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와 납세자 및 개도국 농업 생산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 이러한 미국의 농업정책은 USAID의 개도국 수출 장려 지원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설탕 등 특정 농산물의 대미 수출 장려를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 USAID의 농촌개발활동 역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3. 구속성 원조

- 1996년 기준 미국의 구속성 원조 규모는 전체 양자간 ODA의 3/4에 이룸.
- USAID의 양자간 ODA는 법률에 의해 미국 재화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2년 동 법률의 적용면제(waiver)가 승인되어 DAC의 ODA 언타이드화 권고안 적용이 가능해짐. 또한 미국의 주요 원조품목인 식량원조 및 free-standing 기술지원은 동 권고안 적용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권고안 실행이 미국 원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미국의 타이드 원조는 ODA의 비용효과성을 감소시키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저하시킴.
 - 예컨대 식량원조의 75%는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만 수송토록 제한하여 50%에서 200%까지 운송비용의 추가부담이 초래됨.
 - 기술지원의 경우 미국산 재화만을 이용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절한 것이 아님. 예컨대 수원국에 미국산 자동차만을 공급받도록 할 경우 수리부속을 구할 수 없을 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
-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V. 개발원조 조직 및 관리

1. 조직 및 관리운영체제 개편 의의

- 미국 개발원조 조직 변화의 역사는 조직 외부 특히, 미 의회의 압력에 대한 대응의 양상임.
 - 의회는 원조조직 및 운영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게 하는 한편, 결집성(cohesiveness)을 높이는 역할도 함.
 - 1978년 의회는 IDCA(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라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sation)을 입법, 설치하였으나 거의 실효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소멸함.
 - 동 조직은 USAID, 재무부, 국무부 기타 유관 조직간 상호공조를 목적으로 하였음.
 - 이후 1990년대에 USAID는 보다 전략적인 조직재개편(re-engineering)을 추진하였음.
 - 이를 통해 조직의 가치(corporate values)와 전략적 비전을 세움으로써 냉전 이후 USAID 설립 이래 가장 주요한 조직 현대화의 기초가 됨.
 - USAID가 미국 개발협력 전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각종 사업 등이 투명하고 결과지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함.

2. 조직 개편

- 미국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원조기관간 공조체

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기관간 상호 연계성이나 정기적 회합 및 의사소통이 강하지 않은 편임.

- 주요 개발원조 기관들간 공조는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유연함(flexible).
- 주어진 역할 및 ODA 담당 규모 측면에서, USAID가 핵심 양자원조기관이며 국무부와 재무부가 핵심 다자 원조기관임.
 - 전체적인 공조(co-ordination)에 관한 책임은 점차 백악관 산하의 NSC에 지워지고 있음.

1) USAID

-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미국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실행을 책임짐.
- 청장(Administrator)은 대통령, 국무장관 및 NSC가 수립하는 정책지침에 의거, 대외경제 및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함.
- USAID는 창설 당시 임시조직이었다가 1998년 이후부터 상설화됨.
- USAID는 원조프로그램 실행뿐 아니라 전략, 정책 및 원조경험의 피드백을 담당함.
- 2001년 기준 총 ODA의 1/2, 양자간 원조의 2/3을 담당⁴⁾
- 164개국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70개국에 상주사무소를 설치
- 조직도:〈참고자료 2〉참고

4) MCC 설립 이후 변화함.

2) 국무부

- 미 외교정책 담당 주무기관으로서 다양한 대외 정책을 실행함. 국무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제1 외교정책 자문역임.
- 개발협력 관련, UN 기타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함.
- 타 정부부처의 대외활동을 지원
- 개발협력 부문과 관련, 자체 전문성 부족 때문에 USAID에 의존하여 정치교섭에 의해 추진되는 원조 프로그램이나 국무부가 추진하는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함.
- 국무부 내 주요 개발협력 관련 부서는 경제, 산업, 농무담당실, 그리고 정무담당실, 글로벌이슈담당실 등임.

3) 재무부

- 개발협력 관련 문제는 국제업무실(Office of Internatinoal Affairs)내 국제개발, 부채, 환경 정책국이 담당
- 개발협력 관련 World Bank, 기타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정부부처간 상호협력 업무를 담당

4) 기타 유관부처

- 농무부:국제 식량원조 제공 담당
- 국방부:ODA에 계상 가능한 관련업무(마약통제, 인도적 원조, 지뢰제거 등)를 담당
- 보건부:미국 내 난민정착, HIV/AIDS 및 기타 질병퇴치 업무 담당
- Peace Corps:70여 개국에 7,000명의 봉사단원 파견. 독립적 지위이나 USAID와 긴밀한관계 유지

5) NGO

- 개발협력에 있어 NGO는 미국정부 및 일반대중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NGO의 의견은 다수 미국 국민들에게 개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대안적 입장으로 받아들여짐.
- USAID는 세계개발연대(Global Development Alliance)를 발표함으로써 NGO가 미국 개발협력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을 넓히는 한편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
- USAID는 민간협력담당실(Office of Private and Voluntary Cooperation)에서 NGO 관련 업무를 담당함.
- 광범위한 NGO 연대조직들(associations)은 USAID, 의회, 기타 정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조직원들의 관심을 대변함(예:Interaction, Advisory Committee on Voluntary Foreign Aid(ACVFA) 등).
- 최근에는 빌게이츠재단, 터너재단 등 개인이 설립한 재단(privately-endowed foundations)들이 NGO에 참가하고 있는 양상임.

3. 조직적 상호공조(Organisational coordination)

- 부처간 공조체제 부분은 미국 개발원조 조직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있음.
- 상호공조가 없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임시적으로 공조체제를 수립, 실용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체계적인 상호공조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NSC가 부처간 상호공조의 질적 향상을 책임지고 있음.
- 국무부와 USAID는 개발원조를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하여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4. 관리체제 개편

- 미 의회가 정부성과결과법안(GPRA)을 제정한 후 USAID는 다년간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 및 연간성과 보고를 입안 및 실시하고 있음.
 - 이는 동 법률이 의도하는 결과중심 관리방식(result-based management approach)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USAID는 보고체제 간소화를 통해 현장스텝의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보고의 신뢰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 결과중심 관리방식에 있어서 사업성과와 예산배정을 명료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럴 경우 각 실행부서에서 자체 성과평가를 진실하게 실시할 유인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부분임.
- USAID는 미 의회의 지속적인 비판에 대응하여, 인적자원 관리/ 조달/ 재정관리/ 정보기술/ 전략적 예산수립/ 성과측정 및 보고 등 6개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직경영 개혁을 추진중임.

VI. DAC의 주요 권고사항

1. 개발원조 체계 전반 및 지향 방향

□ 개발을 위한 공동의 비전 마련

- 미국은 공통의 비전과 상호공조의 틀 아래 주요 개발원조 유관 부처들을 전략적으로 결속시키는 명시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의 개발 관련 부분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임. USAID는 이 체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 권고됨.

□ 국제적 파트너십의 공고화

- 미국은 당면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추구, 강화해야 함. 이와 관련 DAC에서 개최되는 각종 포럼을 통해 회원국들의 경험 등을 습득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USAID의 Global Development Alliance 정책은 미국의 주요 개발원조 주체들 간 파트너십 및 공통의 비전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 정책은 타 공여국 및 수원국들에게까지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개발 이슈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 제고

- USAID는 타 정부부처 및 NGO와 연대하여 미국이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공약이 중요함을 대중들이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특히 미 의회는 USAID가 개발원조를 직접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발원조에 대한 대중 및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일관성

□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장려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정책 일관성을 향상시켜야 함. 개발관련 주제를 국가정책과 입법 대화(legislative dialogue) 등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부처간 정책협의 메커니즘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함. USAID는 개발정책 일관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며 NSC, 개발정책조정위원회 등과 공고한 실무 관계를 추구해야 함.

□ 원조의 언타이드화

-OECD/DAC의 원조 언타이드화 권고안의 노력 분담(effort-sharing) 원칙 및 미국 정부의 원조 효과성 제고 의지에 입각하여 양자간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향상시키는 조치를 식별해내고 추진할 것이 장려됨.

3. 원조 관리 및 실행

□ 현장의 권한 강화

-USAID는 현장에 권한을 양여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체제 개편의 시각에서 분권화의 한계점을 파악할 것이 권고됨. 원조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 수원국과의 공동노력이 중요함을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상호감독 및 공동학습 지원을 위한 체계를 서로 강화하기 위해 공동노력이 필요함. USAID 현장사무소는 이러한 상호협력에 참여함은 물론 이러한 협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initiate) 할 것이 장려됨.

□ 현장에서 미 정부부처간 상호공조

-미국 정부는 USAID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원조 자금 제공 관행을 재검토하거나 혹은 원조 현장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유관 부처간 적절한 공조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 장려됨. USAID는 동 이슈를 검토하여 타 정부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장 상호공조 이슈는 NSC나 개발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보다 효과적이고 개발효율적인 원조배분

-미국 정부 및 의회는 기존 이어마킹(earmarking) 체제가 수반하는 전략적 비용 및 관리비용 기타 각종 결과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식량원조 전달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아울러 ODA 등 핵심적인 개발 재원을 개발우선순위에 보다 더 잘 일치되도록 각종 옵션을 검토할 것이 장려됨.

□ 원조관리의 신뢰도 향상

-USAID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조결과를 중시하는(result-based) 체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DAC 내에서 강력한 연대를 구성하여 국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결과중심 원조접근방식을 도입,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USAID는 현재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는 바, 기존 지식기반을 보존하고 타 개발관련 정부부처에 대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한편 미래 전략방향을 지원하는 기법(skills)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Millenium Challenge Account(MCA)⁵⁾

1. 설립배경

- 2002년 2월 멕시코 몬테레이 UN개발 자원 국제회의에서 부시대통령은 “전지구적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계약 (new compact for global development)”을 주창하며 선진국은 원조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
- 부시대통령은 상기 “새로운 계약”에 따른 선진국 원조제공 확대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Millennium Challenge Account(MCA)의 설립을 제안하고, MCA를 운용하는 별도의 기관인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 신설을 의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음. (2004.1월)
- MCA는 외교적인 고려보다는 경제적 고려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그 동안 MCA 운용주체를 둘러싸고 부처간 경쟁이 치열했으나, 백악관의 별도기구로 설립하는 것으로 타협.

2. MCC 조직구성

- MCC의 CEO는 이사회와 상원의 승인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함.
- MCC의 이사회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미 무역 대표부, USAID청장, MCC의 CEO 및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
 - 동 이사회의 구성에는 상원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하며, 국무장관이 이사회 의장이 됨.
 - 이사회는 회계연도 당 최소 4회 회의를 개최해야 함.
(1차는 2,2 기 개최, 2차는 7월하순, 3차는 10월, 4차는 2005년도 1/4분기 예정)
 - 이사회는 MCA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조직구성원은 다양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에서 각각 차출해 구성 (100명 이하).

〈현 이사회 구성〉

성 명	직 급	이사회 내 직급
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의장
John W. Snow	재무장관	부의장
Rob Portman	미 무역대표부 대표	위원
Andrew S. Natsios	USAID 청장	위원
Paul V. Applegarth	MCC CEO	위원

5) 협력단 기획조정팀 내부 업무자료 인용.

3. MCC 정책 및 운영

□ MCC의 정책

- MCC는 미국의 원조정책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해외원조가 국익차원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4 회계연도 MCA 예산으로는 10억불이 배정되었으며, 부시 대통령이 MCA 예산을 현재 미국 원조액의 약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2006년까지 50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동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는 공정한 통치(Ruling Justly), 경제적 자유촉진(Encouraging Economic Freedom), 국민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People) 등 16가지의 세부원칙을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16개 세부원칙〉

공정한 통치	경제적 자유 촉진	국민에 대한 투자
1. 시민자유 2. 정치적 권리 3. 표현 및 책임감 (voice and Accountability) 4. 정부 효과성 5. 법의 원칙 6. 부패방지*	1. 국가신용등급 2. 1년 동안의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률 3. 회계정책 4. 무역정책 5. 규제 의 정도 (Regulatory Quality) 6. 기업이 설립되는 기간	1. 보건 분야에 소요되는 공적비용 (GDP 퍼센트 기준) 2. 예방접종 비율:DPT3, 홍역 3. 초등교육 비용(GDP 퍼센트 기준) 4. 초등교육 이수율

* MCC는 세부원칙 중 부패방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MCC의 운용

- MCC이사회는 지난 2004년, 16개의 세부원칙을 기준 이상 달성했다고 평가되는 16개 국가를 선정한 바, 수혜대상국은 아르메니아, 베냉, 볼리비아, 카보 베르데, 그루지아, 가나, 온두라스,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몽고, 모잠비크, 니카라과, 세네갈, 스리랑카 및 바나아투 등임

※ USAID 지원국가가 아닌 나라도 포함.

- 또한, 상기 16개 국가에는 못 미치지만 부분적으로 MCA 수혜 요건을 갖춘 국가를 분기점에 있는 국가(Threshold Country)로 지정하여, 동 국가들이 수혜국가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함.

〈향후 수혜자 국가 후보 기준〉

년도	계획
2004	1인당 소득 1,435불 이하의 국가 중 IDA 용자 대상국가
2005	1인당 소득 1,435불 이하의 모든 국가
2006	1인당 소득 2,975불 이하(세계은행기준) 110개 최빈개도국

4. USAID와의 관련성

□ USAID와 MCC의 역할

-앞으로 MCC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제한된 국가만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USAID 및 다른 기관을 통해 관리가 될 것임.

□ MC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MCC는 USAID의 영역을 월권하지 않으며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 일례를 USAID 청장이 MCC 이사회에 포함되어 수혜국가를 선정하는 것과,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USAID가 평가와 감독을 맡게 되는 것을 들고 있음.

□ USAID는 개발원조를 미국 국제 정책의 핵심요소로 하는 MCA 기금 마련 및 MCC 설립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며, 동기관이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MCC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5. MCC의 설립이 가지는 의의

1)장점

□ 수혜국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원조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음.

-DAC 가이드라인에도 제시한 바, 최근 원조동향은 수원국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 원조의 증대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고, 특히 자유경제의 장려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

□ MCC에서 지원하는 원조는 대부분 장기적인 개혁과 계획에 맞춰져 있는 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미국의 원조기관은 미재무부, 평화봉사단(Peace Corps), 국방부, USAID 등으로 흩어져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MCC의 설립으로 해외 원조관련 전문가들의 KNOW-HOW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새로운 개발소스를 발굴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임.

-Inter Action(미국 내 주요 대외원조 NGO의 모임)의 '미국의 대외원조 보고서'에 따르면, HIV/AIDS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 다른 5개의 별도기관이 수행하고 있음.

□ 지원활동에 관한 통합된 평가와 감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원조활동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2)단점

□ USAID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추가로 대외원조 담당기구를 신설한 것은 자원과 책임을 더욱 분산시키는 행위이며, 일선에서는 다수의 원조기관이 거의 조정 없이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바, 대외원조의 일관성 결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참고자료 2

USAID 조직도 (일부생략)

